



## 올 상반기 중국 보험사업 실적 부진과 원인

왕양비 연구원

■ 7월 5일 중국 재경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부분 중국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이 올 목표치의 1/3 수준에 불과하며, 5월까지 집계된 공식자료에서도 보험산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.

- 중국 재경보도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위치한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실적 불황 판단을 내림.
- 중국 보험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1~5월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보험료가 2009년 같은 기간보다 36.1% 증가한 반면, 올 1~5월 누적 수입보험료는 6,767.6억 위안(약 1,11조 원)으로 전년 동분기대비 0.5%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들어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.

■ 전체 수입보험료의 증가세 둔화는 주로 생명보험의 실적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, 방카슈랑스 매출 감소와 투자수익률 하락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함.

- 올 1~5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0년 같은 기간 대비 4.6% 감소하여 지난해 증가율보다 40.6%p 하락함.
- 이는 지난 11월에 시행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방카슈랑스업무 관련 규제\*로 인한 방카슈랑스 매출 감소에 기인함.

\* 2010년 10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간 또는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분쟁방지를 위해 '방카슈랑스 관련 보험분쟁방지'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보험회사 파견설계사의 은행 활동을 불허하였고, 2010년 11월부터 각 은행 지점의 보험상품 판매는 3개사 이하로만 제한함.

- 또한, 긴축정책의 본격화에 따라 예금 흡수를 위한 은행들의 고수익보장 금융상품(일부 상품의 수익률이 6%를 초과)의 잇달은 출시와 더불어 펀드와 주식시장의 부진에 따른 보험상품의 수익률 하락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의 주된 이유로 지목됨.

■ 올 1~5월 손해보험 누적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5.9% 증가했는데, 지난해 손해보험 누적 수입보험료 증가율보다 20.6%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● 올 상반기 자동차 매출감소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실적부진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주요인으로 작용함.

– 베이징 등 대도시의 자동차 구매자 가격제한\*과 유가상승 등의 이유로 올 1~5월 중국 자동차의 생산량 및 매출 증가율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.4%p, 49.19%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
\* 베이징의 경우는 자동차 보유량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자동차 구매자를 베이징 호적인 자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, ‘베이징 사람’의 경우에도 10~3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구매자격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.

(중국 재경보도 7/1, 텡쑤 재경 7/5 등)